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8월 소식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시던 장인어른이 뇌졸중으로 의식이 없이 5월 한달동안 4주를 중환자실에서 지내시다가 깨어나신 후 조금씩 조금씩 의식과 신체기능이 회복되고 계신 중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던 체온과 혈압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아직도 거동은 못하시지만 음식을 숟가락으로 드시고,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마치 갓태어난 아이처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을 아버님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지만, 심리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십니다. 가정과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던 분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데는 시간과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쏟아붓다시피 간호에 전력하고 있는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로마서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이웃에게는 소용과 도움이 되지만, 자신이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저희의 마음을 그분께 올려 드립니다.

1. 신약 주석 번역 작업 오랜 산고 끝에 얻게 되는 새 생명의 탄생과 같은 기쁨이 지난 5월에 사도행전이 책자로 발간되면서 더욱 실감있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와 로빈 교수가 반반씩 나누어 감수작업을 마무리하고 편집과 마지막 수정작업을 거쳐 드디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서신, 데살로니가전후와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출간되어 총 13권중에 가장 분량이 큰 7권의 주석이 발간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와 옥중서신을 각각 로빈교수와 젱이쉬 교수가 감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되는 대로 재편집과 수정작업을 하여 인쇄소로 넘기게 될 것입니다. 2년후 은퇴하여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신약주석 시리즈의 발간을 마치고 싶은 로빈 교수의 열망대로, 앞으로 남은 6권의 주석이 잘 마무리 되어 발간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한국어교실 학생들 가운데 60여명이 토픽시험을 치르었는데, 그 중 1급에 12명, 2급에 15명, 3급에 5명이 합격 하였습니다. 개인별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급수에 몇점이 모라라서 한국어 능력시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 고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일주일에 세 번씩 수업을 받은 수준으로 2급과 3급을 받은 학생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곳 키르기즈스탄은 보통 수업이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시쯤, 어떤 학교는 2시쯤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 고려인회관으로 와서 마련되어 있는 한국어 교실에 들어와 차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수업준비를 하다가 2시부터 43반 수업, 그리고 3시반부터 5시까지 2교시가 시작됩니다. 학교별 수업 종료후에 어떤 학생들은 별도의 과외수업을 하기도 하고, 전문학교에 오후반으로 등록하여 공부하는 열성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 드림아카데미 한국어 교실에 오는 학생들도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업시간 전에 한국 드라마나 한국팝을 듣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마을을 보면서 저희 교사들에게 힘을 보태고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봉사팀이 와서 한국어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3일동안 자기소개, 게임, 노래배무기, 간단한 동영상 시청, 한국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인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곳 학생들은 머나먼 한국의 문화와 언어와 함께 부대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다시 9월학기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저희가 돕고 있는 노숙인 센터는 비쉬켁 시내에 한곳이 있고, 한곳은 이곳에서 차량으로 약 한시간 거리에 있는 토크막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토크막에 있는 시설은 겨울(11월 ~ 3월)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지난 4월까지 조금 연장해서 날이 따뜻해진 후에 대부분 일자리를 찾거나 다시 거리로 나가기 전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치기공사로 사역하는 분이 연결되어 15명 전원에게 부분, 전체 보조 틀니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서 앞뒤의 치아를 깎아내지 않고, 그냥 걸기만 해서 연결해 놓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착용 후에도 한 두차례 더 방문해 주셔서 세밀하게 재가공을 해 주어서 대부분 만족스럽게 치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비어있는 땅과 창고시설을 이용해서 토끼나 닭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알아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비쉬켁 시내에 있는 시설 역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시설인데, 잠자는 장소와 함께 저녁 한끼를 제공하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기간동안 구청의 도움으로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이들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저희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새는 지붕도 수리하고, 침대에 놓을 매트리스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가 공동체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런 저런 필요들을 돕고 있어서 저희와 협력하여 좋은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단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차와 음식을 준비해서, 잠자리도 없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지사역자 알렉산드르 목사가 이 봉사 사역의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저희 단체에서도 기꺼이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도 겨울에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알렉산드르와 함께 상의하여 연중 돕는 것으로 해서 이곳에 지속적으로 지내면서 봉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 가족 스케치

장인어른은 지난 4월말에 뇌졸중으로 4주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깨어나신 이후 입원치료를 거쳐 6월 18일에 퇴원하시어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직 거동은 못하시지만 혀가 풀리시어 이제 말씀도 하시고 오른손으로 음식도 드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아직 거동하실 정도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장인 어른댁에 살다시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내가 특히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하며 돌봐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상의 일과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모두 달라졌지만 늘 그분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간구하며 가정과 사역에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

인터넷 전화: (070) 4823-3990 / 휴대전화: (+996)-559-16-4540 / 카톡 아이디: hebronkrgz 이메일 hebron.jeong@gmail.com